

간만에 가족과 함께 대학 선배가 추천한 음식점을 찾았다. 주말인 데다 맛도 좀 괜찮았던 모양인지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 한 시간도 더 있어야겠는데’ 싶은 생각에 포기하려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기다리자는 아내의 말에 그러기로 했다. 기다리며 투정 좀 해 보려고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여기 왔는데 대기 줄 장난 아닌데?”

“너 지금 기다리고 있냐? 대기 번호 몇 번이냐?”

그렇게 대기 번호를 알려 주고 얼마 뒤, 키가 좀 작아 보이는 분이 우리 번호를 호명했고, 내가 손을 들자 잠깐 와 보라고 했다. 가까이 가자 작은 목소리로 “아무 말도 말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일행하고 저 뒤로 오이소”라고 말한 뒤 태연히 가 버리는 게 아닌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식당 주인이자 선배의 삼촌이었고, 내가 투덜대며 전화하니 선배는 알아서 좀 빨리 들여보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돌아와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더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 점심도 거르고 에어컨을 켜 채로 꿀 같은 낮잠을 자던 그때는 작년 여름의 어느 주말이었다. 곧 죽을 듯이 토해 내는 매미 소리와 함께 장단이라도 맞추듯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어 댔다.

“야! 울 엄마 암이라는데…….” 고향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다급함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는 나는 십 년도 훨씬 넘는 근무 기간에 고향 친구들 중에서 병원 관련 종사자가 없어서 본인이나 주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면 좋겠냐는 식의 전화를 종종 받곤 했다. 그날도 휴대폰에 찍힌 이름 보고 사실 조금은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의 단잠을 깨웠던 터라 일부러 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성질 급한 친구의 대뜸 ‘암’이라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위암이라는데, 울 엄마가 너거 병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술하게 되면 거기서 하면 좋겠다는데.”

1주일 뒤, 지방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 및 영상 CD 등 각종 검사 결과물을 준비해서 외래 진료를 보았으나 역시나 예상대로였고, 수술 일정을 잡으라는 말에 상담해 보니 3주 뒤에나 가능했다.

“좀 더 빨리 우에 안 되나?”

내 생각에는 그리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정작 친구는 그것보다는 빨리 어머니가 수술 받으시길 원하고 있었다. 수술 전 입원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몇 해 전 나의 어머니의 암 투병을 통해 잘 알고 있는지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선뜻 답하고 말았다. 그건 수술 예약을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하길 원하거나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을 이유로 중간에 취소하는 사람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잡을 생각이었다. 몇 시간 뒤, 나는 해당 부서로 전화를 걸었다.

“○○과 ○○○라고 합니다. 요즘 위암 수술 많이 기다리나요?”

“네. 조금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아시는 분이 수술 하시나요?”

“아……, 예……, 그게 저…….”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어요. 수술 좀 빨리 할 수 없나 그거죠? 그거 안 돼요.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고, 취소 자리가 나도 그 뒤 분에게 우선 연락드리는 게 맞겠죠?”

담당 직원은 대번에 내가 전화한 의도를 알아차렸고, 나는 얘기도 못 꺼내 보고 소개 여성에게 바로 퇴짜 맞듯 그렇게 통화가 끝났다. ‘작년만 해도 진료 예약 취소 생기면 그 자리로 잡아 주는 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다르지?’, ‘내가 높은 직책의 직원이 아니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졌다. 친구에게 꼭 될 것처럼 말했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싶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몇 시간이 흘러서야 그 비보(?)를 전했고, 그는 상당히 아쉬워하며 3주 뒤에 만나자고 했다. 시간은 흘러 수술 예정일이 다가와 몇 시까지 입원하라는 통보를 받고 올라온 친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야, 1인실밖에 없단다야! 5인실 안 되면 3인실이라도 되면 좋을텐데, 거기 1인

실 병실료 보니 역수로 비싸네.”

다시 난 친구를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이번에는 기필코 해내리라는 이상한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고, 바로 3인실이 안 되면 하루라도 빨리 5인실로 옮겨 달라고 부탁해 볼 요량으로 전화를 걸었다.

“○○과 ○○○라고 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1인실밖에 없나요?”

“네, 지금 상황은 그렇구요. 자리가 나면 순서대로 1인실에서 3인실로, 3인실에서 5인실로 옮겨 드리고 있어요. 간혹 5인실로 가시길 원치 않는 분도 계시고, 몇 명씩 퇴원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하기도 하니 1인실에서 5인실로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1인실로 그렇게 오셔도 하루 이틀 정도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 특별히 누군가만 빨리 옮겨 줄 수도 없고, 침상이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바로 다인실로 입원 절대 안 돼요! 그게 공평한 거죠.”

맞는 말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했고, 선생님한테 한 차례 훈계를 들은 것 같은 느낌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사실 난 저번 수술 일정 때도 그렇고 이번 병실 건도 그렇고 직원끼리는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다. 이건 지금까지 다 통용되었던 보편적 관행이 아니었던가! 여든을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파출소에 순경 한 명만 알아도, 병원에 간호사 한 명만 알아도……”였는데, 이 말이 곧 몰라서 손해 봤던 당신의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가. 그들을 통한다면 일이 쉽게 풀렸던 관행과 관습이 과거를 거쳐 현재에도 있음을 우린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음을, 아니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켜 보다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번 수술 일정 건으로 기분 나빠 했던 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 부끄러움을 안고 친구에게 2전 2패를 알렸다.

결국 친구의 어머니는 배정받은 대로 1인실에 입원해서 수술을 잘 받으셨고, 다행히 이틀 후 5인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서 퇴원을 하기 전날 친구가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해서 만났다.

“어제 엄마한테 처음 수술 일정 당겨 불라고 한 거랑 5인실 갈라고 했던 거랑 다 얘기했더니, 몰랐는데 친구 힘들게 했다고 엄청 화내시더라. 처음에 니 통하면 될 줄 알고 기대했다가 안 되니 좀 섭섭하더라고. 니가 적극적으로 안 해서 안 되나 싶어서. 근데 알고 보니 너거 병원 완전 FM이네. 암튼 고맙데이.”

“아냐. 다 급한데 우리만 새치기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지. 너도 앞으로는 이런 부탁은 하지 마라. 이제 부끄러워서라도 못 하겠다. 덕분에 또 누가 부탁 전화 오면 그거 안 되더라고 말할 좋은 경험했으니 내가 고맙다야.”

아니나 다를까. 그 후로 몇 번의 부탁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고, 직장 동료 중 한 명도 “야, 이제 어디 전화도 못 하겠더라”라며 나와 비슷한 실패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아빠, 우리 언제 먹을 수 있어? 저 아저씨가 뭐라 했어?”

우리가 식당 뒷문으로 가는 건 그때처럼 새치기하려는 것과 같았다. 짜증 난 아이들의 성화에 맘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모두가 다 자기 순번을 지키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조용히 가서 그냥 기다리겠노라고 말씀드렸다.

“응, 순서 잘 지키고 기다리면 양 많이 주신다고 하셨어. 대신 이거 먹고 조금만 더 기다리래.”

불러서 갔을 때, 가지고 왔던 계산대 입구의 손님용 과일맛 사탕 두 개씩 주었더니 신이 나서 더는 칭얼대지 않았고, 그렇게 기다린 끝에 우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흔히 군대와 병원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작년 여름 ‘김영란 법’ 이후 관행에 대처하는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적잖은 놀라움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이 작은 변화가 청렴 문화를 꽃피우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병원과 사회 전체의 부패 및 부정 청탁을 사라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